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2024 KEPCO의 자기소개서



나는 [**해초**] 이다

해초는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바닥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분위기를 잘 맞추지만, 저의 주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여진 동해지사 고객지원팀



kepcos

2024. 01 | vol.607

i am



20
24
01
january
vol.607



자 신 감 있 게

C O N F I D E N C E

당 당 하 게

앞 으 로 나 아 간 다

‘위기’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를 악물었던 투지의 순간부터
혼자 묵묵히 버텨낸 고독의 순간까지.

뜨거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듯이,
나의 일, 나의 회사를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2024년 빛으로 이어지는, 가슴 뜨거워지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here i am, i am KEPCO

i am

KEPCO



통권 607호 2024년 1월호(월간)

발행일 2024년 1월 10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21, 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큐라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4 신년사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8 TIMELINE

“새로운 수익원 창출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0 ESSENTIAL KEPCO

한전 주인의식_소중하고 중요한 순간들

16 LIGHT

- 업무 효율 향상 이끄는 AMI 신 서비스
- 내 손안의 고객센터, 한전 모바일 ARS

20 KEEPER

에너지 전환 시대 여는 배전망 완성
전력연구원 ADMS 개발팀

22 SITE

최첨단 전력기자재 물류의 현장
한전 경인물류센터

26 GREENSIGHT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직원과 함께하는
‘보자기 업사이클링 클래스’

30 VIEW

겹겹의 에너지가 깃든 나라,
영국

36 TALK

KEPCO 일잘러를 위한 북 토크 시간
“당신의 집중력은 안전한가요?”

40 K-CREATOR

우리는 보드게임으로 통한다
류창수 사원이 추천하는 보드게임

42 WIDE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한 기업 ‘소니’

44 MAGAZINE P

월출산에 물들다
영암지사

46 人STARGRAM

48 NEWS

50 ON KEPCO

51 WE ARE KEPCO
기록은 매일 나를 성장시킨다!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내외 한전 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靑龍)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한전인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길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저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00여 일을 차분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취임 직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회사에 24시간 머물며, 우리가 겪는 위기의 근본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지 숙고했습니다.

국내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을 직접 만나면서, 우리 2만 3천여 한전인 DNA에는 위기극복 저력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법정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뻔한 초유의 상황에서, 사상 최초의 자회사 중간배당을 실시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긴박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회사는 3.3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고, 최근 2년간 전기요금을 45.3원 인상하여 경영정상화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이 임금반납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지금의 위기가 너무나 큰 데 반해, 그동안 우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변화와 혁신을 계속 미뤘왔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Enel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한전 가족 여러분,

에너지대전환 시대를 맞아, 204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분야에 무려 12경 원이 투자된다는 놀라운 전망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규모는 2020년 전 세계 총 GDP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에너지 혁신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나 있는데, IT 강국을 자처해온 우리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우리 모두 미래 준비에 소홀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내 전력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한전을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분명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무위기 극복의 시작은, 지난해에 이어 재정건전화 계획과 추가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가는 것입니다.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수익확대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국민께 약속드린 재무개선 목표를 올해에도 반드시 달성해 나갑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정착입니다.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3조 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국민께 계속 알리면서 반드시 요금정상화를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둘째, 회사의 체질 혁신을 통해 경영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기존 관행과 틀을 과감히 벗어나 위기극복과 미래준비 등 핵심 기능 위주로 조직과 인력을 계속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와 보상체계를 혁신해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시급합니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한전 본연의 책무인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 패러다임을 더욱 효율적으로 바꿔가고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전기요금 이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저는, 한전이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의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원전 적기건설 능력을 자산으로 원전 수출 무대를 계속 넓혀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발전부터 판매까지의 가치사슬별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IT기반 에너지 신기술의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바라카원전 4호기까지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해외 송변전, 배전, 신재생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율과 책임경영에 기반한 국민기업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린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독점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책임과 부담을 다 짊어지는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창의력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전력그룹사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기업 체제의 새로운 대안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전력산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계속 지켜가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전 가족 여러분, 이 모든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공기업 마인드를 버리고 주인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수행해내는 사람입니다.

법과 제도를 핑계로 삼아, 기존의 틀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에너지 분야 최고의 경험과 역량을 가진 우리가, 논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나간다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사실을 국민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고객이 몇 번씩 찾아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고객을 찾아가 어떤 불편과 불만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근본부터 개선해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한전의 주인인 직원 여러분이 회사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알 수 있게 하고, 저 또한 직원 여러분과 편안하게 만나는 허심탄회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와 협력도 중요합니다. 눈앞의 이 위기를 어떻게 함께 극복할지, 회사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창출해나갈지가 노사 공동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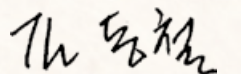
끝으로,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모두가 함께해 주십시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안전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한전인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전 가족 여러분,

위기의 시간은 어둡고 길지만, 기회 또한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회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도구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철저히 무장해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을 다함께 만들어갑시다.

2024년 1월 2일

대표이사 사장 

“새로운 수익원 창출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니어보드와 함께하는 비전 플러스 워크숍 참여, 주니어보드와 진지한 토론 이어가며 소통

‘생각은 짧게 고민은 깊게’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5일 주니어보드와 함께하는 비전 플러스 워크숍이 본사 비전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주니어보드 혁신원정대 4기 120여 명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EO와의 소통 콘서트, 나의 비전 그리기, 주니어보드 활동 성과 공유, 경영제언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환영 인사에 이어진 나의 비전 그리기에서는 주니어보드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비전을 퍼즐 형식의 캔버스에 각각각색의 그림과 슬로건으로 표현, 총 15개의 멋진 작품이 탄생했다. 이어 한 해 동안 자체 추진한 성과 발표 시간에는 보이는 라디오 제작, 주니어 아카데미 운영 등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종횡무진 활동해 온 주니어보드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철 사장과 이정복 경영관리 부사장, 이준호 안전&영업 배전 부사장이 같이한 이 자리는 경영위기 극복과 안전 한전 구현, 공정한 인사 평가 등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이어가며 창의적인 경영제언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CEO와의 소통 콘서트는 ‘주니어보드, 리더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CEO와 경영진의 경영이념, 위기 극복 경험 공유 및 고민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CEO가 꿈꾸는 KEPCO’에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이라는 답이 나오자 참석한 주니어보드 사이에서 열렬한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한전은 이제 전력판매에서만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위기 극복을 위한 CEO의 울림 있는 주장으로 행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은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환기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나누고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전의 미래 주역인 주니어보드와 함께하는 2023년 비전 플러스 워크숍,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 설비 점검 등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희망의 새해를 열어가는 CEO를 만난다.

겨울철 전력 설비 긴급 점검,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김동철 사장은 12월 7일과 20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설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먼저 김동철 사장은 울산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이튿날인 12월 7일 서울 서초구의 신양재 변전소를 방문, 설비고장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전력 설비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신양재 변전소는 1999년 준공된 수도권 345kV 변전소로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전력 설비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사장은 “울산의 대규모 정전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다시금 지적하며, 전력 설비 사전점검과 신속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올겨울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2월 20일 김동철 사장은 계속되는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로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본사 수요관리센터 및 재해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수급 상황실을 살펴보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폭설이나 혹한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3개월간을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며, 본사와 15개 지역본부에 전력 수급 대책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회사, 일, 동료 앞에
 '나의'라는 단어가 함께하면
 마음이 커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나의 회사, 나의 일,
 나의 동료.
 새로운 해를 맞이해
 동해지사를 찾아
 KEPCO인의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마주하는 순간을 담았다.

주인 의식

주인의식 主人意識

일이나 단체 따위에 대하여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식.

출퇴근길, 사무실, 현장.
 내가 머무르는 곳에는
 나의 열정이, 나의 노력이,
 나의 꿈이 담겨있다.
 그렇게 쌓인 '내 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함께 꿈꾸고 나아가는 힘,
 그 속에서 빛나는
 KEPCO의 주인의식.
 “당신에게 주인의식이란 무엇인가요?”

이 화 경
~~동해지사
 고객지원팀~~

주도성 있게 일하는 자세
 나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주도성 있게 일한다면
 고객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업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나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내가 선로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합쳐지면 당황스러운
 민원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어떤 조직이나 일에 있어 무엇인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홍석의 & 노승용

~~동해지사 배전운영팀~~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전역과
 강릉시 일부 지역의 전력공급과
 고객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해안과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
 특성상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및 강풍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상존하지만, 동해지사 4개팀
 33명은 철저한 설비관리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 효 경 & 이 민 종

~~동해지사 요금관리팀~~

열정과 애사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
워렌 버핏은 '오너처럼 행동하는 것'을 성공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자 열정과 애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주인의식 아닐까요?

'내 것, 내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
주인의식이 없다면 무엇을 하든 내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게 되고, 진정성과 열의 있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여 진

~~동해지사 고객지원팀~~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타임라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에서 나만의 행복을 얻으려면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를 하며 서로 협조를 구하는 데도 용이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결국 나와 같은 마음일 수 없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손 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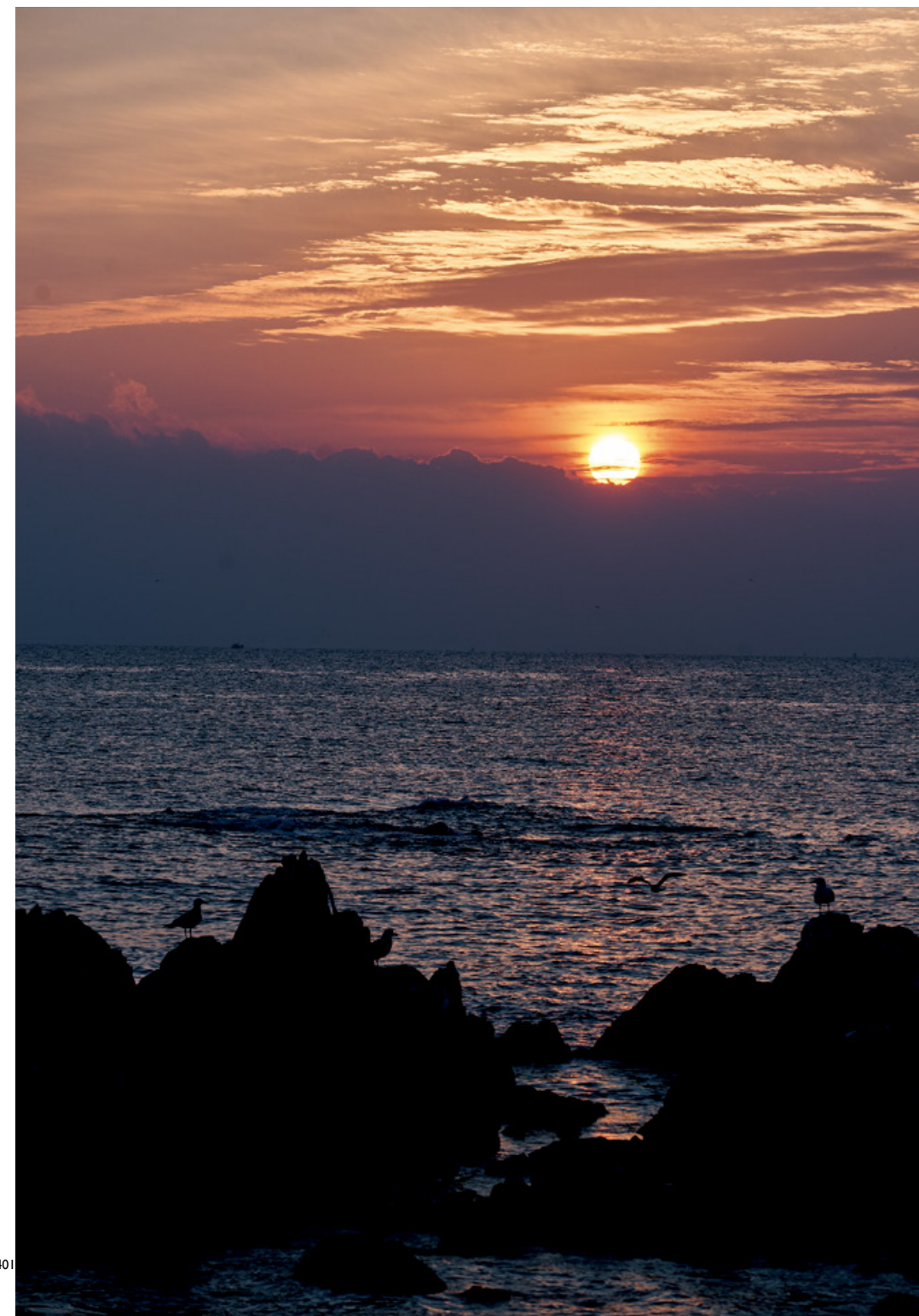
~~동해지사 전력공급팀~~

달력
업무상 현장 약속이 많아 잊지 않으려고 일정을 기록해 두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달력입니다. 업무의 동반자이자 가장 소중한 것이죠.

오 상 용

~~동해지사 전력공급팀~~

안전화
입사 후 처음으로 지급 받은 개인 장구로 현장조사, 안전점검 등 현장을 나갈 때 늘 함께합니다.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동해지사
업무 약속이 가득한 달력부터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화,
그리고 늘 함께해서 든든한 동료까지.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은
저마다 이유를 품고 있다.
'책임'이라는 압박보다
'사랑'이라는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내일의 빛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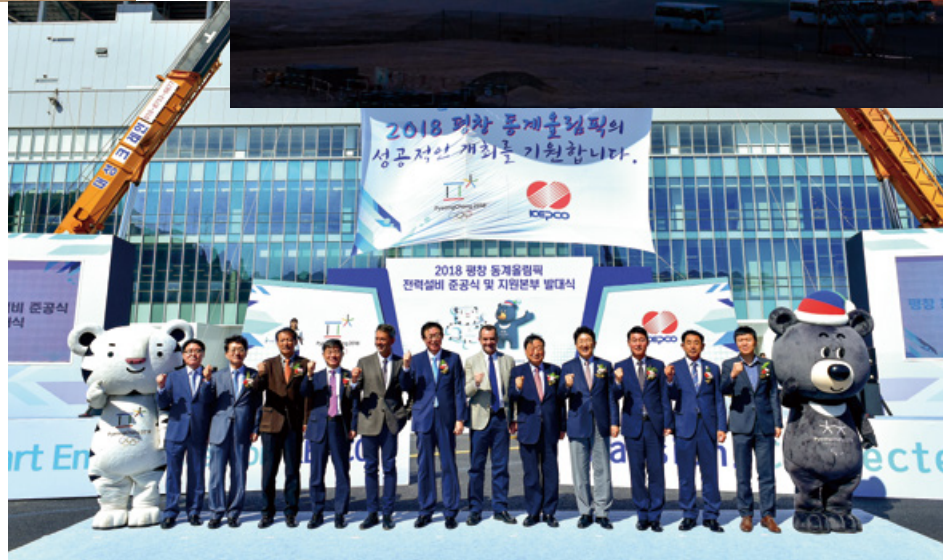
1982년 한국전력공사 발족부터 2024년 지금까지 KEPCO 최고의 순간

나의 회사, 나의 일, 나의 동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KEPCO 최고의 순간을 만났다.



2023. 10.
**'IJ Global 2023
ESG Awards'
모범 프로젝트상 수상**

한국전력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IJ Global ESG AWARDS 2023' 시상식에서 UAE HVDC 해저송전망 사업으로 'IJ Global 2023 ESG Awards'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UAE HVDC 해저송전망 사업이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사업 부문 올해의 ESG 경영 모범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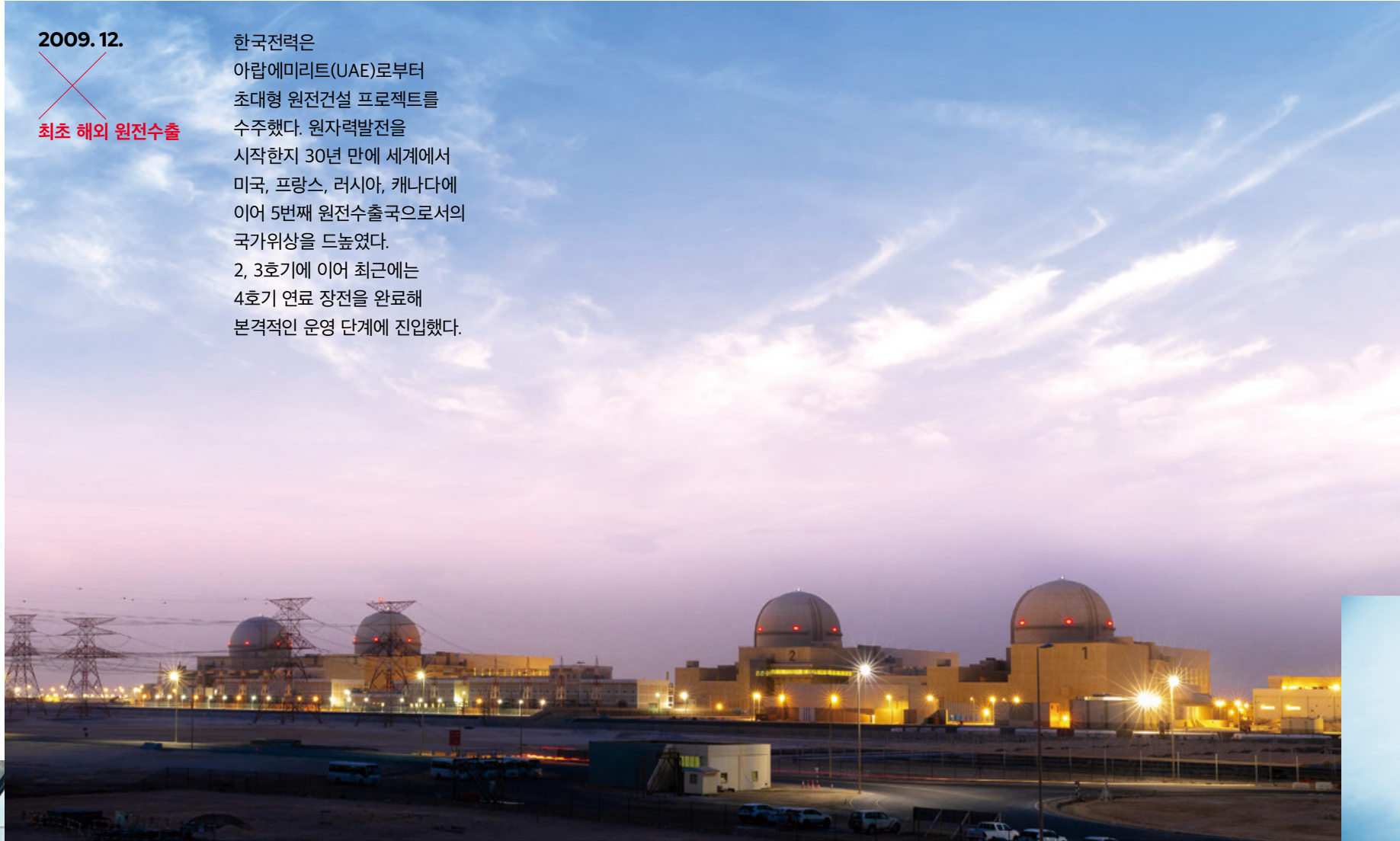


2018. 02.
**평창 동계올림픽
무결점 전력 확보 달성**

한국전력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정전도 없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2015년부터 총 1,509억 원을 투자해 154kV 변전소, 변압기, 송전선로, 배전선로 등을 신설·보강하는 '올림픽 전력설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2009. 12.
최초 해외 원전수출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초대형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한지 30년 만에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5번째 원전수출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을 드높였다. 2, 3호기에 이어 최근에는 4호기 연료 장전을 완료해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



2003. 12.
**순수 국내 기술로 달성한
765kV 송전망 준공식**

당진-서산 765kV 송전선로는 처음부터 765kV 송전용으로 건설되었으나 765kV 송전을 위한 변전설비가 완공되지 않아 345kV로 전압을 낮춰 송전했다가, 2001년 12월 765kV 전용설비인 신서산변전소 완공으로 가압을 실시하게 됐다. 765kV 가압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였다.



2006. 06.
에디슨상 대상 수상

세계전력업계 최고권위의 상인 '에디슨상 대상'을 수상했다. 에디슨상은 미국 186개 회원사, 타국 36개국 66개 전력회사 및 70여 개의 준 회원사들의 모임인 미 에디슨전기협회(EEI)가 전력산업 발전에 공이 큰 회사에 1922년부터 매년 수여하며, 세계전력 부문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권위있는 상이다.



1

업무 효율 향상 이끄는 AMI 신 서비스

저압 AMI 구축 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르며, AMI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업무 효율과 고객 편의를 높이는 AMI 신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란?

AMI는 양방향 통신을 통해 고객의 전기 사용량을 검침하고, 전력 사용량과 요금 등의 실시간 전력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에너지 절약과 수요 반응을 유도하고, 전력 설비 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이다.

2010년 정부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정책에 따라 우리 회사는 2,250만 호의 모든 저압 고객에 대해 AMI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저압 AMI 구축 호수는 1,637만 호(2023.12.14 기준)로, 최종 목표 사업량의 72.8%를 달성했다.

우리 회사에서 추진되는 저압 AMI 구축 사업은 완료 단계에 이르렀으며, AMI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업무 효율과 고객 편의를 높인 새로운 서비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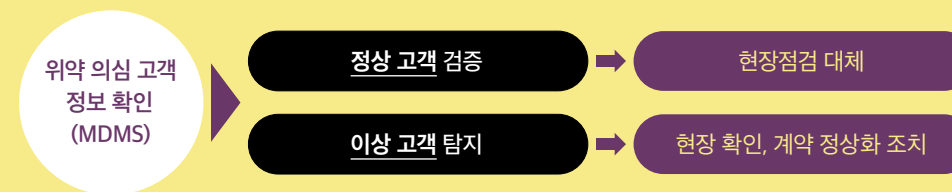
영업처는 TF 운영 등으로 경쟁력 있는 AMI 서비스 개발에 힘써 왔다. 이를 통해 실시간 원격 AMI 데이터 활용으로 업무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는 위약 고객 탐지, 보증금 예측 등 총 5건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했다. 현재 배전운영처를 비롯한 스마트미터링처, 디지털전환실, 영업배전시스템실 등 관련 처·실과 협업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 중이다. 이번에 개발된 총 5건의 신 서비스는 개발 완료되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사로 확대됐다.

위약 의심 고객 정보 제공해주는 '위약 의심 고객 탐지 서비스'

접속경로 | MDMS ➡ AMI 서비스 ➡ 위약 탐지

위약 의심 고객 탐지 서비스는 계약전력 초과, 휴지 기간 중 사용, 예비전력 무단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AMI 기반의 전력 소비 패턴 데이터를 비교해 위약 의심 고객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자는 정상 고객과 이상 고객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위약과 관련된 서비스는 MDMS 시스템 내 신설된 '위약 고객 탐지' 탭에 접속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약 의심 고객관리 프로세스



계약전력 초과 고객 탐지

20kW 미만의 450시간 제외 고객은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제외 대상 사실 여부와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현장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의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인력과 시간의 투입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위약 의심 고객 정보를 MDMS에 접속해 '계약전력 초과 고객 탐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계약전력을 초과 사용한 현장 조사 대상 고객을 일차적으로 선별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현장점검을 방지할 수 있다. 고객의 최대 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전력 초과 사용 횟수, 전력량 등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무단중설 등의 위약 의심 고객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계약 관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영업처에서는 20kW 미만 고객의 초과 사용 데이터를 근거로 초과 사용 부가금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기본 공급 약관 및 요금업무 처리기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휴지 기간 사용 고객 탐지

휴지 상태인 고객은 검침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객이 임의로 전기를 사용한다 해도 오랜 기간 파악하기 어렵고, 불어난 금액만큼 수금업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휴지 기간 사용고객 탐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제공되는 일 단위 리스트를 통해 휴지 고객의 무단 사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휴지 기간 시작일로부터의 총 사용량뿐만 아니라 평균 사용량, 최대 사용량 등을 고객별로 조회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해 휴지 고객의 무단 사용을 적기에 탐지하여 계약 정상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위약 고객의 자동 재사용 처리를 위한 공급약관 개정과 요금발행 연계를 위한 요금업무 처리기준 개정도 곧 추진될 예정이다.



예비전력 무단 사용 탐지

병렬운전을 할 수 없는 고객은 상용 전력과 예비전력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고객이 설비를 시설해야 하지만, 별도의 감시 체계가 없다. 그러나 MDMS의 '예비전력 무단 사용 탐지' 서비스를 통해 상시, 예비계량기의 시간대별 사용량을 분석할 수 있게 됐고, 동일 시간대 사용 내역을 검출하여 예비전력 무단 사용 고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배 4.0으로 고객의 계약사항 중 병렬운전 정보 관리 기능도 신설되어 향후 예비전력의 무단 사용은 정확히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납요금과 보증금의 차액 보여주는 '보증금 초과 고객 예측 서비스'

접속경로 | 영배4.0 ➡ 보증금 관리 ➡ 보증설정관리 ➡ **보증금 초과 고객 예측 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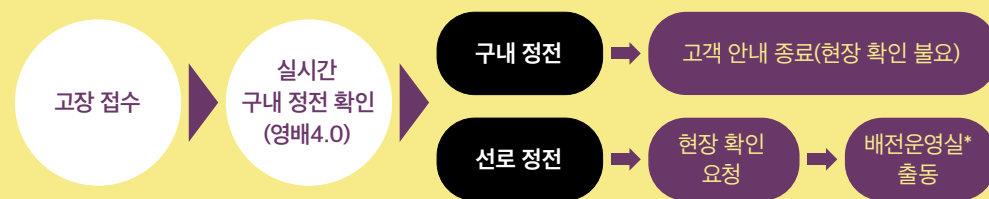
보증금은 임시전력 미납으로 인한 해지 경험 고객이나 소유자 명의를 아닌 경우에 설정한다. 그러나 설정된 보증금의 잔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증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미납금까지 발생하게 된다. '보증금 초과 고객 예측' 서비스는 설정 보증금의 미납요금뿐만 아니라 요금이 발행되기 전 검침일부터 15일간의 사용요금까지 미리 반영하여 보증금의 차액을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담당자는 영배 4.0에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증설정 금액 초과가 우려될 경우 요금 납부, 보증금 추가 납입 등의 고객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실시간 정전정보 활용한 '구내 정전 안내 서비스'

접속경로 | 영배4.0 ➡ 고객응대 ➡ 상담접수 ➡ 민원접수 ➡ **전기 고장접수**

고객 측의 구내 정전은 고객설비 이상에 의한 정전으로 한전과는 무관하지만 고장신고 접수단계에서 구내 정전 여부를 구분할 수 없어, 배전운영실에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고장 접수된 모든 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AMI 실시간 정전정보를 활용한 '구내 정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센터가 고장접수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구내 정전을 구분할 수 있다. 선로측·고객 구내의 정전은 전력량계의 전원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로 정전인 경우 전력량계도 OFF가 되므로, 전력량계의 전원이 ON인 경우 고객이 정전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구내 정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AMI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전정보를 전송받아 고객센터 또는 사업소에서 고장접수를 하는 경우 간단히 '정전 확인' 버튼을 눌러 구내 정전을 구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현장 출동을 방지해 준다. 또한, 배전운영처와 협업하여 배전운영실에서 현장 출동 전 고객의 검침 정보를 확인하여 구내 정전 여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업무절차를 운영 중에 있다.

고장 접수 시 업무 프로세스



* 고객의 원격 검침 정보(15~60분 주기) 활용 구내 정전 여부 재확인 후 현장 확인 시행

AMI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을 관리하면 이상 신호를 미리 발견하여 요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이익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담당자의 노하우에 의존하던 고객관리를 정확한 고객 분석을 통해 표준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현장점검이나 별도의 데이터 분석 작업이 줄어 업무효율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영업처에서는 업무 효율화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소와 협업하여 다양한 신 서비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개발 완료된 서비스는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구축과 전사 교육을 통해 정착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AMI 데이터 활용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때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2

내 손안의 고객센터, 한전 모바일 ARS

우리 회사는 12월 4일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ARS' 서비스를 오픈했다. 모바일 ARS는 한국전력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상담 서비스로, 상담 연결 대기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업무를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ARS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문자로 안내 받은 주소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업무 단계별로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고객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담원과 통화를 원하는 고객은 '상담원 연결 버튼'을 통해 기존과 같이 상담원 연결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모바일 ARS로는 요금 조회와 이사 정산, 전기고장신고 등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빠른 상담이 필요한 업무 등 총 15종의 고객 업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번호 찾기' 기능은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불편함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상담사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이번에 오픈한 모바일 ARS를 통해 통화 연결 대기로 겪는 고객 불편 해소는 물론 상담 시간 단축으로 고객센터 상담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모바일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차별화 된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ARS 가능 서비스 15종

요금납부 서비스	요금부가 서비스	긴급 서비스	편의증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요금 조회 및 납부 · 청구서 재발행 · 지정계좌 안내 · 자동 이체 관리 · 이사정산 · 청구서 유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계산 내역서 ·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전기요금표 · 청구서 유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고장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변경 접수 · 관할 사업소 찾기 · 고객번호 찾기 · 에너지 캐시백 안내



에너지 전환 시대 여는 배전망 완성

전력연구원 ADMS 개발팀

●
 지난 11월 27일 전력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 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플랫폼으로 2023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오랜 기간 땀의 결실로 만들어진 이들의 성과물은 이제 현장에 모두 적용될 전사 확대를 앞두고 있다. 개발팀은 앞으로도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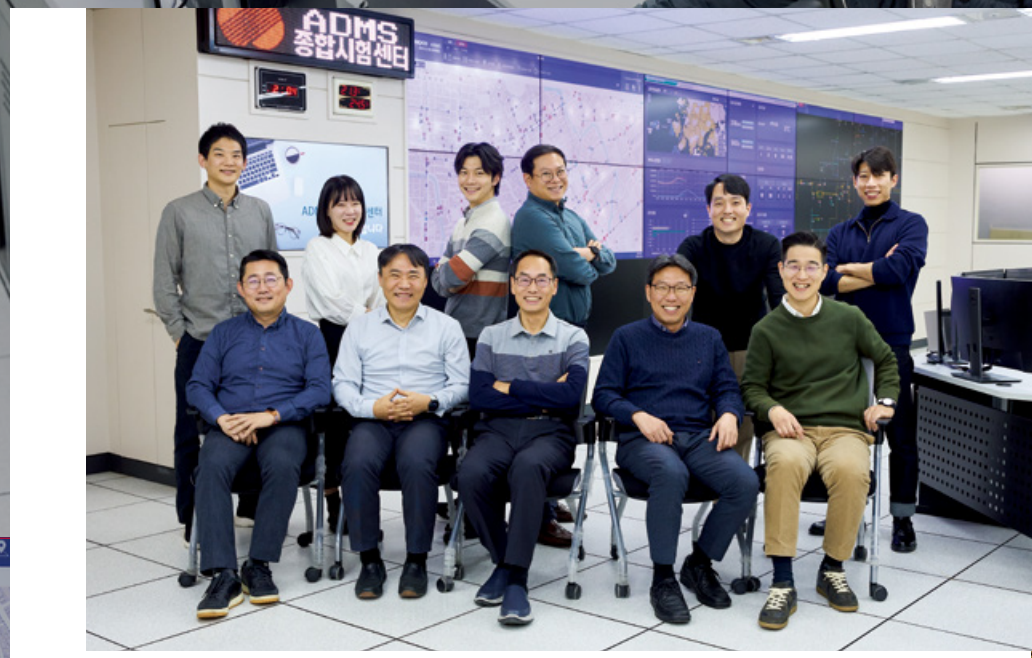
복잡해지는 배전계통에 대응하는 미래 시스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싹뚝처럼 연결하고 있는 배전망. 이 배전망에 작은 문제가 생긴다면 정전이 발생하거나 안정적인 전력은 공급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형 배전자동화시스템(DAS,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은 고장구간을 최소화하고 정전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전망에 태양광발전 등 분산전 전원의 접속이 급격히 늘어 배전계통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배전계통의 안정적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ADMS 개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배전연구소 정원욱 책임 연구원이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들은 기존의 배전자동화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 에너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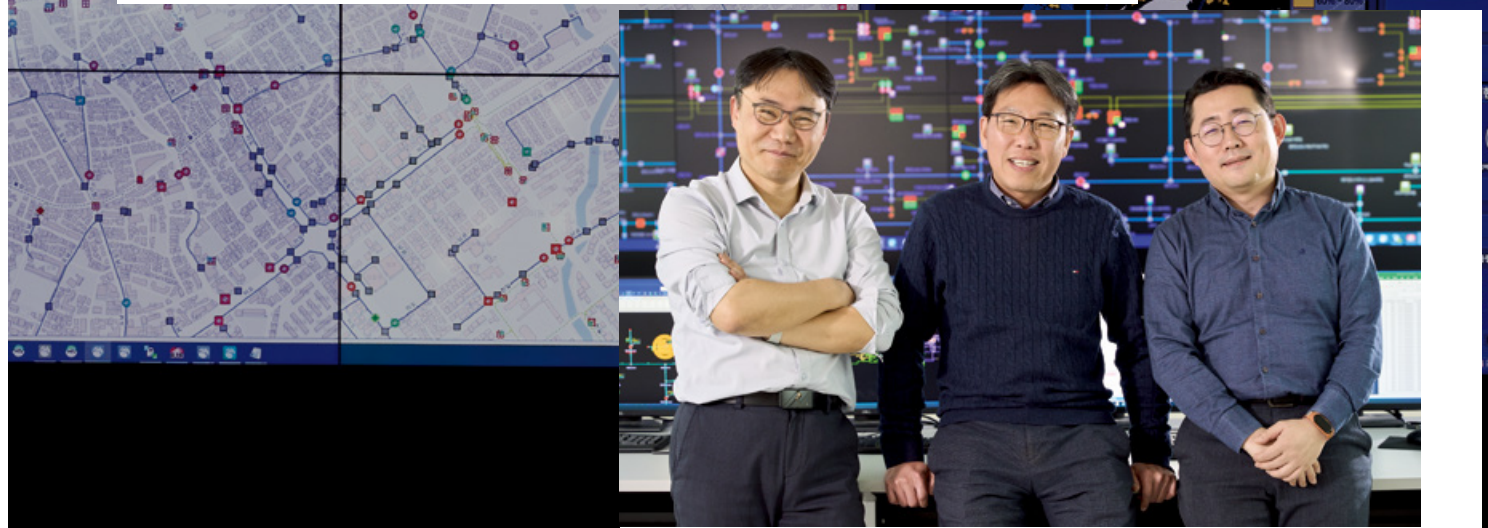
디지털 변환 등에 따라 급변하는 배전망 운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ADMS 개발 프로젝트를 역점과제로 추진하였다. 최종 완성한 ADMS 플랫폼은 지난 4년여간 개발에 힘써 온 팀원들의 땀이 오롯이 담긴 성과물이다. “ADMS 플랫폼은 기존 배전자동화시스템(DAS)의 모든 기능을 대체하면서 미래의 배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통운영 기능과 성능을 확장하고 시스템 장애로 운영업무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무중단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 단말장치들로부터 고장 등 대용량 이벤트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2017년부터 초기 멤버로 참여해 플랫폼 개발에 끝까지 힘을 다한 디지털솔루션연구소 김동욱 책임연구원이 ADMS의 기능을 하나씩 설명한다.

2024년 성공적인 전사 확대 완료 기대

개발이 완료되면 현장에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는 순간은 긴장이 되기 마련.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충북본부 직할을 대상으로 ADMS를 시범 적용하였을 때를 잊지 못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해 단위시험을 비롯한 통합시험, 성능시험, 고장 전력시험센터 등 다수의 시험을 마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실제 적용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ADMS 성공을 기대하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들의 눈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20년 전에 설치된 표준화되지 않은 현장 장비에서 발생하는 통신 장애, 배전망 정보 DB 구축 과정의 인적 오류 등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점들. 하지만 테스트 과정에서의 오류는 완벽한 시스템을 약속하는 통과리레일 터. 전력연구원을 비롯한 배전계획처, 개발자 등이 함께 모여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실증사업이 시작된 이래 2년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고품질의 ADMS 기술 확보가 이루어졌다. 현재 ADMS 플랫폼은 2021년 충북본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 착수 이후 2023년 말까지 9개 지역본부가 ADMS로의 전환을 마쳤다. 이제 2024년 경기북부본부를 포함한 6개 지역본부까지 ADMS로 전환되면 전사 확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셈이 된다. 이들의 분투가 녹아든 ADMS 플랫폼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여는 희망의 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4년여간 개발에 힘쓴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디지털솔루션연구소 김동욱 책임 연구원, 배전연구소 정원욱 책임 연구원, 배전연구소 조성민 책임 연구원.

Change Ma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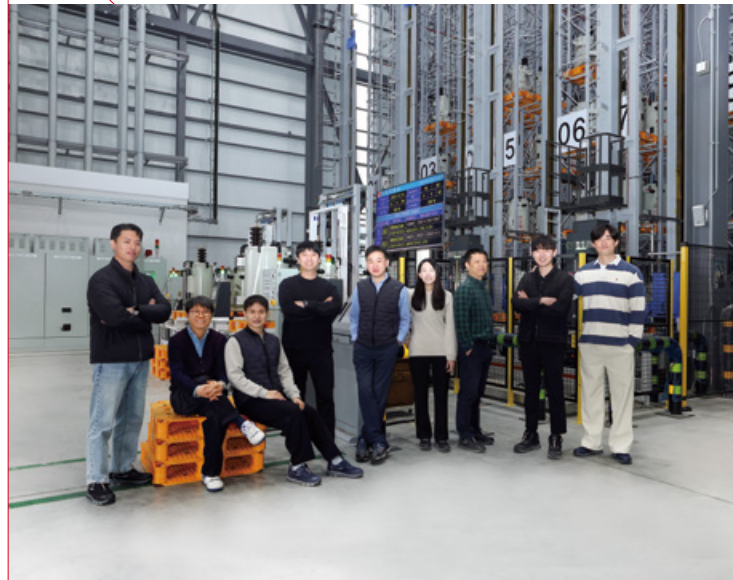
한전 경인물류센터는 한전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의 혁신을 이루고 저비용 고효율 물류체계를 실현한 현장이다. 혁신의 현장으로 가보자.

최첨단 전력기자재 물류의 현장

한전 경인물류센터

#김포시 양촌읍 4만여㎡ 부지에 자리한 한전 경인물류센터. 현대적인 신축건물에 거대한 최첨단 물류설비들이 눈길을 끈다. 매연 하나 없고 소음도 나지 않는 전기지게차가 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랙(Rack) 사이를 기민하게 오가며 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물류설비를 운영하는 작업자들은 모바일 PDA를 활용하여 예약된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 이전 자재센터와는 사뭇 다른 모습.

Site



첨단 물류 기술의 집합체인 변압기 자동화 랙 앞에 선 경인물류부(TF).

한전 경인물류센터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각종 전력기자재를 저장, 보급하는 곳이다. 기존 자재센터는 도심지 주택가에 자리해 자재 야적에 따른 미관저해, 작업소음, 분진 발생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은 서울·남서울·인천·경기북부본부인 수도권 4개 본부의 자재센터를 통합해 한전 최초로 현대화된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했다.

첨단기술 활용해 물류센터 현대화&자동화 구현

경인물류센터는 여러모로 현대화와 자동화를 이루었다. 물류센터는 자재를 실내에 보관하기 위한 4개의 창고동(A, B, C, D 동)과 관리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변압기를 보관하는 B동은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센터 핵심 기술 집합체로 주목받고 있다.

전용 파렛트에 적재된 변압기는 컨베이어와 무인운반차를 통해 스택크레인으로 운반하여 자동화 랙(Rack)에 다단으로 쌓인다. 9단까지 고층으로 쌓을 수 있어 최대 3천6백대를 보관할 수 있다. 게다가 AI(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최적의 보관 위치를 선정하고 자동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선입선출관리 등 입출고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또 변압기, 개폐기와 같은 주요 전력기자재에 고유인식번호를 생성, 부여해 자재생산정보를 연계하여, 주문·생산부터 불용처리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모바일 창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재고관리, 입출고 작업관리 등을 모바일 PDA로 처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수송관리시스템과 차량 출입 예약제를 도입해 수송과정을 대기와 혼잡없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환경을 살리며 안전도 챙기는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

특히 경인물류센터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여러 요소들을 도입했다.

먼저 자재 보관을 위한 받침 역할을 하는 파렛트의 경우 기존에는 목재나 저강도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1회성으로 이용되었는데, 이번에 친환경 고강도 파렛트로 대체하고, 렌탈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연간 533t의 탄소배출 저감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하역작업을 할 때 이용하던 내연기관 지게차를 친환경 전기 충전형 지게차로 대체하였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설비와 고효율 설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첨단 기술이 동원됐다. 작업자와 물류장비에 지능형 접근경보 태그를 부착하여 서로 안전거리 이내 접근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진입 시 양방향 알람을 통해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또한, 지능형 CCTV를 활용해 물류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이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AI가 작업자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차량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하는 안전 수칙 위반은 물론 화재나 침입자 발생 등의 위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리자와 작업자에게 경고 알람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력기자재 물류 현장에 혁신의 바람 불다

한전은 2017년 8월부터 경인물류센터의 밑그림을 그렸고, 신축부지 취득, 설계, 건축, 사용승인, 재고 이전의 긴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경인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의 여정은 그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았다. 게다가 이곳은 검단신도시와 가깝지만, 인천과 김포의 경계선인 끝자락에 자리해 있어 주변에 인프라도 부족하고, 식사 배달조차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다. 하지만 전력산업계 최초로 구축되는 첨단 물류센터의 혁신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쁘게 일하고 있다고 상생조달처 경인물류부(TF)의 안형승 부장은 뿌듯한 얼굴로 설명을 덧붙인다.

한전은 경인물류센터의 성공적 구축을 발판 삼아 앞으로 다른 본부 자재센터들도 첨단 물류센터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물류 효율화로 재고관리비 등 물류센터 운영비용의 절감과 기존 자재센터 부지의 매각 및 부동산 개발 수익과 같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전력기자재 보관 품질 유지, 안전하고 깨끗한 보관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대외 이미지 향상까지 기대하고 있다.

AI와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IT기술로 전력산업계 물류 현장의 풍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한전 '경인물류센터'. 그 변화와 혁신의 바람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인물류센터의 깔끔한 외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물류 환경에서 자재들을 관리하는 경인물류부 사무원.



설비에 고유번호(바코드)가 부착되어 PDA로 효율적 자재관리를 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기가스 없는 전기지게차를 도입한 경인물류센터.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직원과 함께하는 '보자기 업사이클링 클래스'

“우리는 지구온난화 시대를 지나 지구열대화 시대에 진입했다.” 2023년 7월, UN 사무총장의 경고다. 저탄소 친환경 생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지구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KEPCO인들을 만나보자.



여러 가지 보자기 포장법을 배우는 직원들.



처음에는 어색했던 손길이 차츰 보자기에 익숙해졌다.

복도 간직하고 지구도 지키는, 보자기

새해를 맞이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운 색의 보자기와 아름다운 매듭으로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든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섬유류로 분류되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보자기는 처치 곤란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 아까운 마음에 보자기를 잘 정리해서 보관해도, 결국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해 자리만 차지할 뿐이다. 그렇다면 보자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보자기는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작은 천을 말한다. 펴고 잡을 때마다 용적의 신축이 자유로워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수를 놓거나 조각 천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등 보자기를 공들여 만들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보자기를 뜻하는 한자어 ‘복(袱)’을 ‘복(福)’과 뜻이 통하는 것으로 믿었으며, 보자기에 싸두는 내용물을 복에 비유해 ‘복을 싸두면 복이 간직된다’라고 믿었다. 이 오래된 믿음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정성과 예를 갖춘 선물은 보자기를 활용해 포장한다.

지구열대화 시대를 맞이한 현재, 보자기는 업사이클링의 키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Upgrade’와 ‘Recycling’이 합쳐진 단어로, 쓸모 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이다. 커피박이나 유통 기한이 지난 원두를 보자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탈취제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커피 소비국’으로, 2020년 기준 연간 367잔의 커피를 마신다. 매일 1잔의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문제는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 그만큼 커피 찌꺼기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커피를 추출하고 배출되는 찌꺼기를 ‘커피박(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1잔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은 14.97g이다. 원두 15g에서 원액 0.03g을 제외한 99.8%가 찌꺼기로 버려지는 것이다. 버려지는 커피박을 재활용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커피박 외에도 와인병, 택배 박스도 보자기만 있다면 아름다운 화병과 정리함으로 만들 수 있다.

커피 탈취제와 와인병 화병으로, 쓸모를 만난 보자기

보자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으로 친환경 운동에 나선 KEPCO인들이 있다. 바로 에너지생태계조성처의 박영룡 차장과 엄지현 대리, 정재보 대리, 전 에너지생태계조성처의 허영현 차장(현 노사협력처), 조인화 대리, 최진우 대리이다. 각자 자리를 잡고 앞에 놓인 보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제대로 배우겠다는 열정이 느껴졌다. 보자기 업사이클링 강의는 블레싱보의 대표이자 보자기 아티스트 김선주 강사가 맡았다. 그는 평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생활 속 쓰레기나 일회용품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보자기 업사이클링 강의를 준비했다.

“저는 환경에 관한 거창한 이야기 대신 일상에서 보자기를 가까

이 두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상자, 마시고 난 와인병 등을 보자기로 포장해 물건에 새 용도를 부여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한 번 배워 두면 업사이클링뿐만 아니라 물건 포장을 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첫 번째 보자기 포장 방법은 매듭을 이용한 ‘커피팩으로 만드는 탈취제’였다. 커피물이 든 듯 빛깔이 고운 소창 보자기에, 전통 매듭을 묶어 간단하게 탈취제를 만들었다. 다들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보자기 포장 방법이었다. 다음은 ‘빈 와인병으로 만드는 화병’이었다. 보자기 가운데에 와인병을 놓기부터 보자기로 자신만의 수국을 피워내며, 다들 보자기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처음 만져보는 보자기, 새로운 배움이 쉽지는 않았을 터. ‘버리는 상자로 만드는 정리함’을 배울 때는 조금씩 어려움을 토로했다.

“저는 돌돌 말아도 장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보자기 장미가 좀처럼 잘 만들어지지 않는 엄지현 대리의 질문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엄지현 대리 옆에 앉은 최진우 대리는 강사님의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멋진 정리함을 완성했다. 엄지현 대리도 강사님의 도움으로 보자기 정리함을 완성했다. 서로의 작품을 비교도 하고 도와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강의는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오늘 만든 작품을 담을 수 있는 보자기 가방을 만들며, 강의는 끝이 났다. 목직해진 보자기 가방을 들고 있는 모두의 얼굴에서 뿌듯함이 올라왔다. “오늘 배운 보자기 활용 방법을 이용하면 센스 있는 선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자기부터 택배 박스, 와인병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것들도 배우고 싶어요!”



큰 천이나 보자기 한 장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만들 수 있는 ‘보자기 가방 만들기’

- 1 보자기를 준비합니다.
- 2 보자기의 한쪽 끝을 두 뺨 정도 길이로 묶습니다.
- 3 나머지 3개 끝도 동일한 길이로 묶습니다.
- 4 두 개의 끝을 잡고 묶어줍니다.
- 5 반대쪽도 묶어서 가방을 완성해 줍니다.

김선주 강사의 보자기 TIP
보자기 가방은 보자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불필요한 포장이나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보자기의 다양한 색과 재질에 따라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원하는 가방 크기에 따라 매듭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mini interview



최진우 대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에너지밸리추진실

평소 음료를 마실 때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는 등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왔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해에는 보자기로 다양한 선물을 포장해보려고 합니다.



조인화 대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에너지생태계기획부

명절이 되면 선물 포장으로 보자기가 많이 생기는데, 아까워서 보관해도 결국 못 쓰고 방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각보다 쉬운 포장 방법도 있어서 이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엄지현 대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KENTECH협력부

‘보자기’하면 고루하다는 인식과 어디에 쓸지 난감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포장 방법을 배우면서 보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박영룡 차장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산학협력실

‘에너지생태계조성처’로 이름이 바뀐 우리 처와 딱 맞는 클래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보자기가 새롭게 보이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로 전기를 발전하는 친환경 운동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영현 차장

전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지역상생담당 (현 노사협력처)

평소 음료를 마실 때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는 등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왔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해에는 보자기로 다양한 선물을 포장해보려고 합니다.



정재보 대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산학협력실

친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아 현재 사내 플로깅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자기를 통해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뜻깊게 다가왔고, 앞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소한 친환경 실천 방법을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United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나라다. 19세기 아일랜드를 복속한 후 국가명이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로 확정됐으며, 줄여서 UK라고 부른다. 남다른 영국을 만나고 싶다면 잉글랜드에서 시작해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까지 떠나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와 중세 고성은 물론 대자연과 동화 같은 마을 등 다채로운 풍경이 우리를 기다린다.

겉걸의 에너지가
깃든 나라,

영국

Kingdom



“런던이 지겨워진 사람은 인생이 지겨워진 사람이다.” 영국의 시인 겸 평론자인 새뮤얼 존슨의 말이다. 새뮤얼 존슨의 말처럼 런던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다. 런던은 미술, 뮤지컬, 펍, 축구, 공원 등 다양한 테마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이므로. 런던의 아이콘 중 하나인 대관람차 런던 아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은 템스강을 사이에 두고 빅벤, 세인트 폴 대성당과 같은 역사적인 건물과 더 샷드, 20 펜처치 스트리트 같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 테이트 모던에서 보이는 세인트 폴 대성당.



↘ 런던의 상징, 런던아이에 노을이 담겼다.



↘ 칼튼 힐에서 바라본 에든버러 성은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다.

잉글랜드 여행의 관문, 런던

런던은 걸어서 버킹엄 궁전, 대영박물관과 같은 문화유산과 하이드 파크, 그린 파크 등 공원을 즐기기에 완벽한 도시다. 런던 산책의 즐거움 중 하나는 템스강 위에 놓인 다리를 걸어서 건너는 일이다. 템스 강변의 멋진 건물 안에 뮤지엄이 포진해 있어 강변을 걷다가 뮤지엄으로 스며들 수 있다. 워털루 다리를 건너면 서머셋 하우스에 닿는다. 서머셋 하우스는 16세기부터 왕족들이 기거하던 궁을 18세기에 건축가 윌리엄 챔버스가 개축한 공공건물로 내부에 미술관과 카페 레스토랑이 동지를 틀고 있고, 매년 겨울 안뜰에 아름다운 스케이트장이 들어선다.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너면 런던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에 닿는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유일한 보행자 다리로 비스듬히 뻗어나가는 구조 덕에 양옆으로 펼쳐지는 강변 풍경이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밀레니엄 브리지 위에서 뒤를 돌아 바라보는 세인트 폴 대성당과 스카이라인도 근사하다.

거부할 수 없는 두 도시의 매력,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여행의 거점은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 에든버러와 스코틀랜드 제2의 도시 글래스고다. 왕가의 기품이 깃든 수도 에든버러에 도착하면 산 위에 요새처럼 견고하게 자리 잡은 에든버러 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메리 여왕의 아들로 영국의 왕이 된 제임스 1세가 태어난 성이다. 에든버러 성을 둘러본 후엔 성에서 홀리루드 하우스까지 왕가 전용 도로였던 로열 마일을 거닐어 보자.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길을 따라 걸으면 옛 건물이 말을 건네고, 바람결에 실려 온 백파이프 음악 소리가 낭만을 더한다. 왕가의 영광이 깃든 고풍스러운 도시라면 글래스고는 19세기 철강·조선업이 발달한 상공업 중심지였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도 글래스고에서 시작됐다. 제임스 와트와 애덤 스미스를 배출한 명문 대학은 글래스고 대학이다. 글래스고 대학 캠퍼스 안에는 켈빈그로브 미술관이 있다. 켈빈그로브 미술관에서는 스코틀랜드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그림부터 렘브란트, 고흐, 모네, 피카소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 우뚝 선 타이타닉 벨파스트.

아일랜드 속 영국, 북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 여행의 거점은 수도 벨파스트(Belfast)다. 벨파스트는 과거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가 있던 도시였다. '할랜드 앤드 볼프(Harland and Wolff)'에서 1911~1912년에 걸쳐 건조된 배가 바로 타이타닉이다.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는 2013년 타이타닉 호 침몰 100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박물관, 타이타닉 벨파스트가 우뚝 서 있다. 벨파스트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자이언트 코즈웨이의 관문이기도 하다. 약 5,000만년 전 고대 화산 폭발로 형성된 4만여 개의 검은 현무암 기둥이 늘어진 신비로운 해안은 아일랜드의 거인 등 많은 전설과 신화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



↘ 바람결에 실려 온 백파이프 음악 소리가 낭만을 더한다. 스코틀랜드.

뜻밖의 풍경이 가득한 땅, 웨일스

웨일스 여행은 수도 카디프(Cardiff)에서 시작하면 좋다. 카디프 성, 카디프 국립 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다. 그중 카디프 베이는 19세기 세계 제일의 석탄 수출항으로 꼽히던 카디프의 영광이 서린 곳이다. 옛 항구는 레스토랑과 카페 대관람차가 있는 관광지로 재탄생해 활기찬 분위기를 뿜어낸다. 카디프 해안의 매력을 느끼려면 자전거를 타보자. 카디프 베이에서 해변 마을 페나스까지 이어지는 4마일(7km) 길이의 순환 트레일은 환상적인 자전거 코스다.

카디프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쯤 달리면 세계 최초의 책마을, 헤이 온 와이(Hay on Wye)에 도착한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 리처드 부스가 1961년부터 이 시골을 책으로 가득 채우고, 900년이 넘는 헤이성을 사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서점을 열며 책 마을로 거듭났다. 지금은 30여 곳의 서점이 아기자기한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웨일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성을 보려면 콘위로 가야 한다. 과거 웨일스 왕국을 점령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가 지은 성으로 700년 세월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콘위 성벽에 오르면 멀리 스노도니아 국립공원의 험준한 산맥이 보인다. 스노도니아 국립공원의 백미는 아서 왕의 전설이 깃든 스노든산이다. 스노든이라는 이름은 고대 영어로 '눈의 언덕'을 의미하며, 1896년 운행을 시작한 산악철도를 타고 오를 수 있다.

알록달록 지중해풍 정원 마을 포트메리온(Portmerion)도 빼놓을 수 없는 웨일스의 여행지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마을 포르טיפ노를 동경한 건축가 윌리엄스 엘리스가 1926년부터 이곳을 지중해풍으로 평생을 바쳐 조성한 마을이다. 웨일스 서북쪽 본토의 마지막 큰 도시는 뱅거(Bangor)다. 뱅거에서 브리타니아 다리를 건너가면 앵글시 섬에 다다른다. 앵글시 섬에서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관문이 바로 홀리헤드(Holyhead) 항구다. 홀리헤드 항구에서 페리나 쾌속선을 타면 아일랜드까지 갈 수 있다.

1. 윌파 신규 원전 부지
Wylfa Newydd
nuclear power station
2.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관문,
홀리헤드 Holyhead
3. 선사시대 유적이 남아있는
잉글랜드 최대 섬,
앵글시 섬 Anglesey island
4. 아서 왕의 전설이 깃든,
스노든산 Snowdon
5. 알록달록 지중해풍 정원 마을,
포트메리온 Portmerion

Traveling Wales



원전중주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발걸음

김동철 사장은 2023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영국을 방문하여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직접 확인하고, 국민방문 기간 중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여 정부·의회 및 산업계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사업추진방안을 협의하는 등 영국 원전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동철 사장은 웨일즈 지역의 버지니아 크로스비(Virginia Crosbie) 보수당 의원 초청으로, 11월 20일 윌파 신규 원전 부지를 방문하여 부지 여건 및 지역주민의 원전 수용성 등을 확인했다. 윌파 부지는 영국 내에서 최적의 대형원전 건설 부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 원전을 운영했던 지역으로 인프라가 우수하고, 대다수 지역 주민들도 원전을 찬성하고 있다.

6. 깊은 산 속 서점으로 가득한
책 마을,
헤이 온 와이 Hay on Wye
7. 해안을 따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카디프 Cardiff

베드제드를 상징하는 아이리쉬 탐험 모양의 화기구가 돋보인다.



최초의 탄소중립 복합개발 도시, 베드제드

베드제드(Bed ZED)는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로, 베딩톤 제로 에너지 개발(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의 약자이다. 이름 그대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지역이라는 뜻이다. 가동이 중단된 오수처리 부지에 100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해 더 의미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2002년 완공된 베드제드 주거 지역은 태양열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동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소규모 열전력 발전소도 있다. 올해로 건설된 지 21년이 된 베드제드. 그 사이 친환경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베드제드가 첫 선을 보인 2002년과는 기술적, 사회적 환경이 무척이나 많이 달라졌다. 자연히 베드제드에는 보완할 점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드제드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기술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분명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베드제드의 친환경 에너지

23%

영국의 일반적인 100가구 규모 단지보다 적은 탄소배출량

240^{k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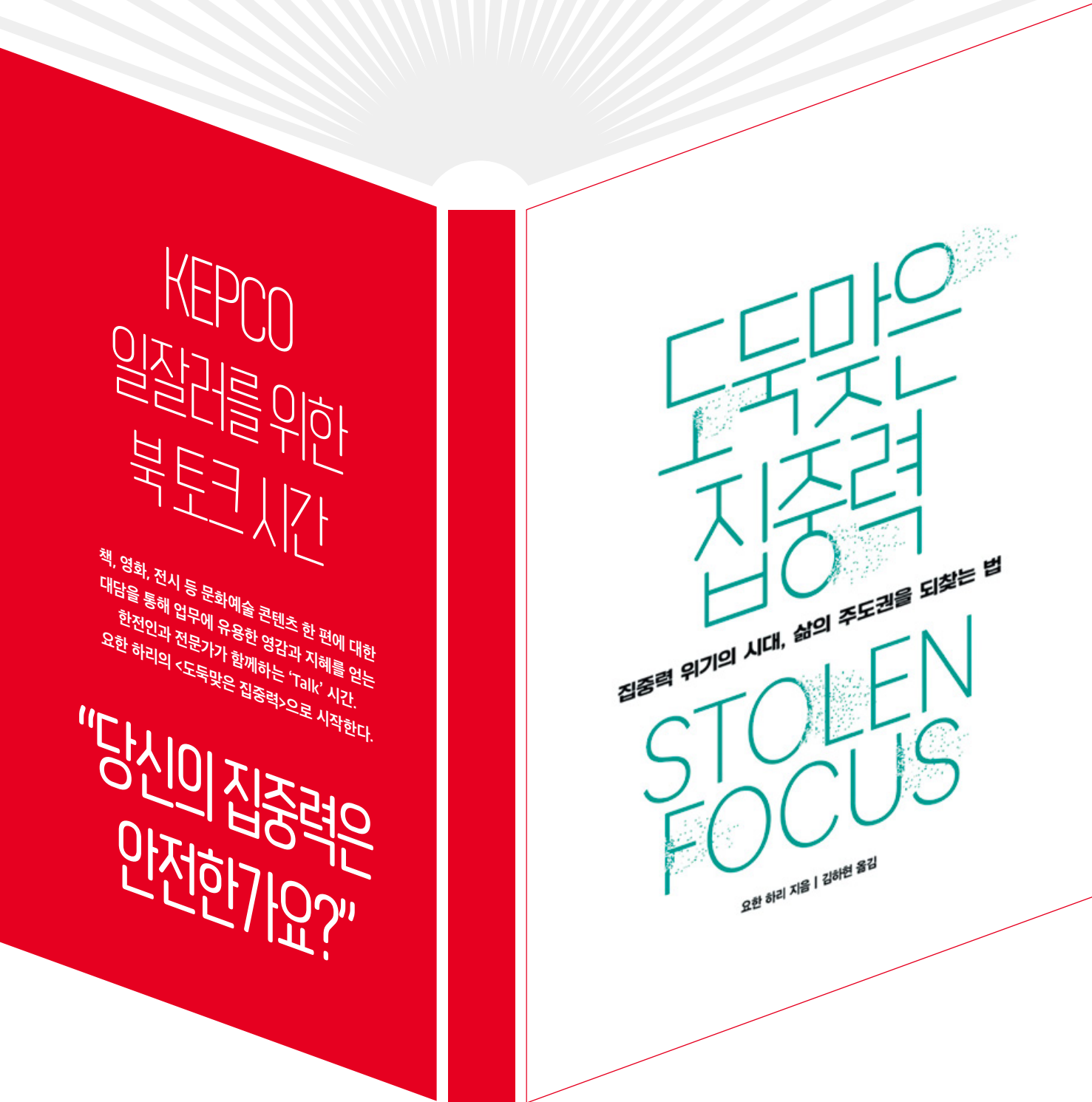
240kW 규모의 CHP 발전소 운영, 온수 100% 제공

88,000^{kWh}

약 776㎡ 태양광 패널 설치로 88,000kWh 전력 생산

30^{cm}

일반적인 영국 주택의 벽 두께의 3배



KEPCO
일잘러를 위한
북토크 시간

책,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 한 편에 대한
대담을 통해 업무에 유용한 영감과 지혜를 얻는
한전인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Talk' 시간.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으로 시작한다.

"당신의 집중력은
안전한가요?"

PANEL

김인하
홍보처 대리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성하는 본질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김인하 대리. 책을 통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접했을 때, 이를 표현하고 공통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좋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으로 'Talk'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양승규
경영지원처 사육간실실 차장
양승규 차장은 "즐거보는 매체에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방법 중 하나"라며 새로운 코너의 첫 시작에 참여한 '퍼스트 무버'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SNS를 시작하기 전의 자신에게 책을 추천하며, 가장 많은 의견을 전했다.

원수연
대전세종충남본부 부여지사 대리
평소 마음이 맞는 사우들과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원수연 대리. 주로 소설을 읽는 편이라 평소 접하지 못한 책을 추천받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경험이라고 말했다. 독서 모임을 함께 하는 사우들에게도 함께 읽어보라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궁민
북 칼럼니스트
컨설턴트로 일하며,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삼프로TV <북인더스탠딩>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남궁민 북 칼럼니스트. <북인더스탠딩>을 통해 주목받지 못한 책들의 숨은 가치를 재발견하듯, <도둑맞은 집중력>의 가치를 찾아냈다.

“
김인하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고민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은 집중력 문제의 원인이 날날이 열거되어 있어, 이를 인지해 나가는 과정만으로도 해결 의지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추적하고 조종하는 테크 기업들' 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집중력 파괴가 그들의 사업 모델이라는 다소 음모론적 문제 제기도 내심 속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중력 문제의 원인은 옳고나옳지 않은 문제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생각을 했던 저에겐 반전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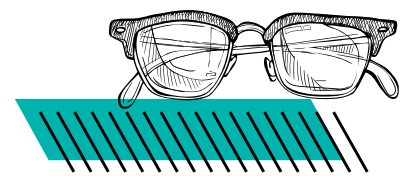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우리는 기후 위기 같은 전례 없는 걸림돌과 장애물에 직면해 있으며, 이전 세대와 달리 이 같은 심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문제 해결 능력도 저하된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25page



“
양승규
제목만 봤을 때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자기개발서 같았는데, 읽고 나서는 집중력 저하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 연구한 논문 같은 책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결국 집중력 저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절대적 능력 중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인에게 필요한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지요. 우리 회사의 초급간부를 선발하는 과정의 시험인 One Page Report 작성 과제도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직장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집중력의 저하를 막는 일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의식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가 어린아이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 노래의 도입부가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 (중략) 이게 뭐지? 아, 맞다. 평온함이었지. 내가 한 거라곤 두 개의 금속 덩어리를 놓고 온 것뿐이었다. - 45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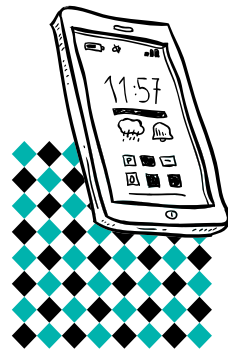
“
원수연
<도둑맞은 집중력>은 각종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카카오톡에 점령당한 우리 모두의 '빠를 때리는' 책입니다. 평소 업무를 하며 특히 멀티태스킹을 할 때 집중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아차' 하고 다른 일을 뒤적거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업무 시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카오톡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고 그러다 사진을 뒤적거리고.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생경한 기분이 들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프로빈스타운으로 떠나 인터넷 없이 지낸 일주일 동안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온함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일관된 핵심 원칙이 하나 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게 만들 정보를 보여준다. 그게 다다.
우리가 화면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그들이 버는 돈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02page**

남궁민 “책에 따르면 연구 결과 현대인의 집중력은 최대 3분 남짓에 그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한 번 깨진 집중력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평균 23분이 집중력을 되찾는데 소요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장인이 매 순간 뜨는 팝업과 메일, 메시지를 오가며 일을 한다면 제대로 일한 시간은 겨우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은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범인’으로 테크 기업을 지목했습니다. 제가 한 테크 기업에 다니던 시절, 지켰던 철칙은 ‘절대 스크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였습니다. 게시물 하나를 보면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가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 아래로 끊임없이 새로운 게시물이 나오게 배치하고, 가급적 게시물의 길이도 짧게 했습니다. 이런 ‘판’을 깔아 놓으면 이용자는 끊임없이 앱을 떠돌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소셜미디어 등 많은 IT 플랫폼은 이용자에게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이용자는 시간을 뺏기며 동시에 집중력도 잃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바꾸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 우리는 집중력을 잃는지도 모른채 시간과 효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각종 알림에 눈을 뺏기다 보니 밀린 일을 하려 야근하고, 집에서는 유튜브 쇼츠를 보느라 새벽이 되어서야 잠드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일상입니다. ”

**개구리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파리를
자신이 먹을 수 없는 돌보다
훨씬 많이 쳐다볼 겁니다. -87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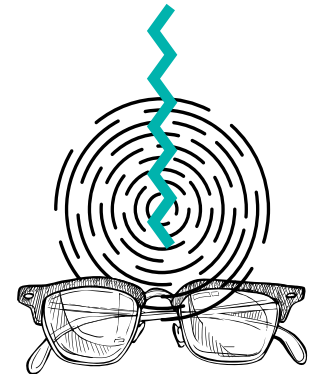
김인하 “디지털 디톡스는 다이어트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늘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물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의미를 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중력을 도둑질할 사사로운 디지털상의 정보들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과감히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그것들을 설계한 누군가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다 몰두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그들의 설계에서 보다 자유로워야 하는데, 명상과 자기 질문 등을 통해 무의식에 자리한 나의 진정한 욕구를 의식화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색보다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태도로, ‘내 인생 누군가 조종하는 대로 휘둘리는 건 자존심 상한다’는 마음으로요! ”



양승규 “‘무한 스크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을 이번 독서의 가장 큰 성과로 뽑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테크 기업이 무한 스크롤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져 당연한 듯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무한 스크롤로 제공되는 요약 영상으로 여러 편의 영화를 압축하여 체험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장편의 영화 한 편을 관람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루할지라도 정도를 걷는 마음으로 과정을 밟는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신만의 생각하는 힘, 집중력을 키우는 퍼스널 트레이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유튜브의 기록 옵션을 사용 중지시켜 놔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영상 목록 대신 원하는 영상의 제목을 직접 입력해서 찾아보는 과정에만 선별해서 참여가 가능한 상태이죠. 완전히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이니 자신만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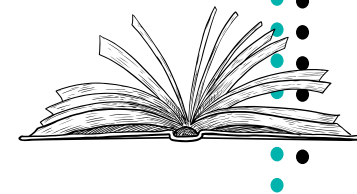
**스페인의 작가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이 가세트가 한 말이 떠올랐다.
“준비될 때까지 삶을 미룰 수는 없다...
삶은 우리의 코앞에서 발사된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해. 그러면 죽기 직전에
인스타그램에서 '하트'를 몇 개 받았는지 쳐다보며 누워있게 될 거야. -36page**

원수연 “저는 책을 읽으며 ‘수면의 부족’이 저의 집중력 위기와 가장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미 없는 영상들을 보고 자기 전까지 “하나만 더”라고 외치며, 결국 늦어진 취침 시간 때문에 다음 날 아침 피곤함에 절어 일어나곤 합니다. 책 속에 나온 수면 부족의 폐해를 읽으니 앞으로는 자기 전에는 무조건 핸드폰을 멀리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스페인의 작가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말처럼 삶은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고, 잠시 멈춤의 기능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자기 전 한 시간 동안 핸드폰 만지지 않기 같은 간단한 디지털 디톡스라도 실천해야겠습니다. ”



**집중력 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을지도 모른다. -24page**

남궁민 “<도둑맞은 집중력>은 현실을 꼬집으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는 ‘일잘러’로 살아남기 위한 비결입니다. 스마트폰에 집중력을 뺏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런 방법과 함께 각종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공신력을 더하죠.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관련성을 떠올리기 힘들었던 식단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겨우 수 십년 전만 해도 인류는 맑은 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넘치고 무한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낭비한 끝에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집중력’이라는 자원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줄줄 세는 집중력을 기업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세는 집중력을 막고, 진정한 ‘일잘러’로 거듭나면 어떨까요. <도둑맞은 집중력>은 그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



우리는 보드게임으로 통한다

보드게임이 주는 장점

내가 정음지사에서 동기들, 선배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보드게임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있었다. 특히 놀거리가 부족한 지방 사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과 다 같이 둘러앉아 하는 보드게임이야말로 주요한 놀거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드게임의 또 다른 장점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취미활동이라는 것이다. 게임을 즐길 사람들과 보드게임만 있다면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특히 사내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보드게임의 구매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젠거나 루미큐브같이 유명한 게임들의 경우 1만 원대의 가격에 책정되어 있고, 조금 구성이 있는 게임들도 5만 원대의 가격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구입 후에는 반영구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 감히 경제적인 취미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누구나 어렸을 적 하고 후 친구들과 혹은 명절 때 친척들과 부루마불을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정음지사 보드게임 동호회의 정식 이름은 '정음 보드게임 통'이라는 뜻의 '정보통'이다. '통'은 영남지방에서 '짱'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은어다. '정보통'은 월 1회의 주기적인 모임과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소규모 모이는 비정기 모임을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다.

보드게임을 보다 더 잘 즐기려면

우선 보드게임에 흥미가 있지만 도전해 보지 못한 사우분들에게는 퇴근 후에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보드게임 방에 가는 것으로 발을 떼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은 게임 소개와 난이도 표기, 직원의 추천 게임 목록 등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보드게임 선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처럼 지방 사업소여서 동료와 보드게임 방을 찾아가는 것보다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는 동료를 찾는 것이 더 빠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보드게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 구하기'이기 때문이다. 처음 참여한 모임에서는 막연히 모임장에게 게임 선택을 일임하는 것보다 어떠한 게임을 해보았는지 경험과 어떤 게임이 재미있었고 없었는지 취향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은 초심자를 고려하여 모임장이 게임을 골라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반대로 이미 보드게임을 취미로 삼고 있으면서 동료 직원의 영업을 꿈꾸시는 사우분들에게는 항상 초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원하지도 않는 장르의 어려운 게임을 하면서 큰 점수 차로 지는 것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 다시는 보드게임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창수 사원이 추천하는 보드게임

패치워크(2인)

2인 고정게임으로 각자의 판을 예쁘게 수놓으면 되는 게임이다. 보통 디자인이 예쁜 게임은 전략성이 떨어진다는 인식과 달리 뛰어난 전략성까지 있어 커플들에게 내었을 때 실패하지 않았던 게임이다.

라스베가스(3~4인)

주사위 운 게임의 대표주자이다. 흰색 주사위 특수규칙을 쓰면 전략성이 가미되어 더욱 흥미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울고 웃게 된다.

티추(4인)

초보들에게 잘 권하지 않는 게임이다. 너무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 이 게임만 하고 새로운 게임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 4명 고정게임이기에, 딱 4명의 모임이면 강력하게 추천한다.

보드게임 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쌓은 내공으로, 동료들을 영업하면서 절대 실패가 없었던 게임들을 소개한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재미있는 보드게임 고수의 느낌으로 소개하는 보드게임들을 만나보자.

스컬킹(4~6인)

티추 만큼 엄청난 중독성을 가진 게임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4명일 땐 티추를 하고 5, 6명일 때는 스컬킹을 하는 것이 모든 보드게임 모임의 흐름이었다.

7원더스(4~7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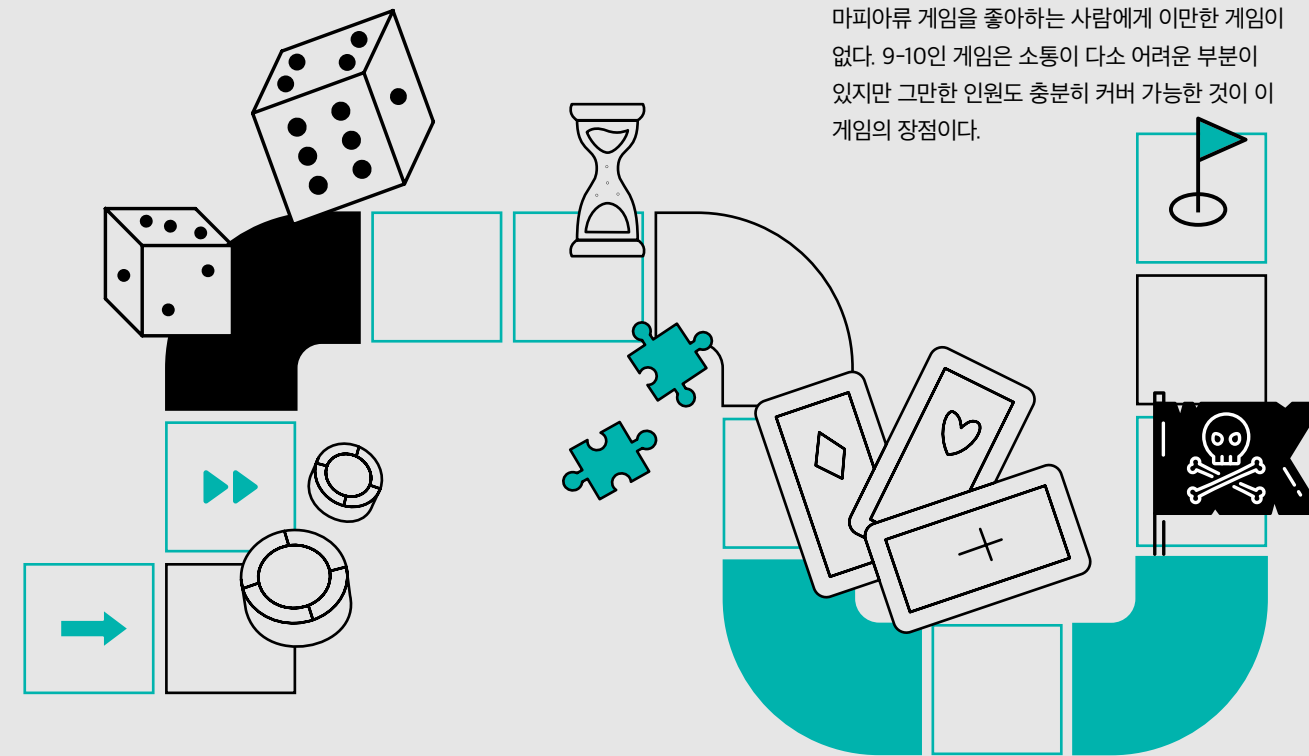
적당한 견제, 적당한 전략, 적당한 운 요소, 적당한 소요시간. "보드게임의 정석이 있다면 '카탄' 다음으로 이 게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게임이다.

텔레스트레이션(6~8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것이라 생각되는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이다. 언제나 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게임이기에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서둘러 해보길 권한다.

레지스탕스 아발론(6~10인)

마피아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만한 게임이 없다. 9-10인 게임은 소통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인원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이 이 게임의 장점이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한 기업 ‘소니’

1946년 설립된 일본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 ‘소니’. 세대마다 ‘소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한 소니의 이야기를 알아보자.



카세트테이프와 CD로 음악을 들었던 5060세대에게 ‘소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으면 대부분 ‘워크맨’을 언급할 것이다. 세계 전자시장을 제패한 1980~90년대, 소니를 최정점에 올려놓은 ‘3대장’은 단연 워크맨, 바이오 노트북, 트리니트론 TV였다. ‘기술과 디자인의 연결’을 모토로, 타사를 압도하는 디자인과 장인정신에 기반한 견고한 만듦새와 탄탄한 품질이 소니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지금의 MZ세대에게 ‘소니’에 대해 물으면 열에 아홉은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과 스파이더맨, 귀멸의 칼날 같은 애니메이션을 떠올릴 것이다.

소니는 더 이상 가전 제품이 아닌 소니 뮤직, 소니 픽처스를 앞세운 문화 콘텐츠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인기 PC게임과 드라마가 대표 상품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났다.

빠를 꺾는 노력 끝에 미디어 기업으로 환골탈태하다

1980년대 워크맨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소니는 글로벌 기업으로 급부상했고, 이후 브라비아 TV, 노트북 등 고품질의 가전제품을 출시하며 명실상부 일본을 대표하는 가전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세계 전자 업계를 호령했던 소니가 2000년대 들어 한국·중국 업체에 밀리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TV·노트북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던 2000년대 중반 소니는 게임·영상 사업을 키우겠다고 선언했지만 주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2011년에는 역대 최악인 4,600억 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니는 1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차근차근 기술력과 콘텐츠를 융합해 하나의 콘텐츠를 가전·스마트폰·게임기에서 모두 사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 전략으로 반전을 모색했다. 스파이더맨이 대표적이다. 자사가 판권을 가진 만화 스파이더맨을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소재로 활용하고, 자체 제작하던 게임 소프트웨어를 외부 업체와 공동 개발해 다양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2020년 소니의 매출 비율은 게임이 31%, 전자 22%, 음악 19%로, 완벽하게 소프트웨어·미디어 기업으로 변신했다. 소니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치고 역대 일본 영화 흥행 1위에 오르는 등 콘텐츠 사업에서도 대박을 터트리며 완벽하게 소프트웨어·미디어 기업으로 변신했음을 보여줬다. 적자까지 기록했던 순이익은 1조 엔을 달성했는데 이는 1946년 소니가 창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업의 전환은 실적뿐만 아니라 ESG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탄소 배출이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콘텐츠업으로 체질이 변하면서 ESG 등급도 A등급에서 AA를 거쳐 마침내 최고 등급인 AAA로 상승했다.

소니를 구한 진짜 히어로 ‘히라이 가즈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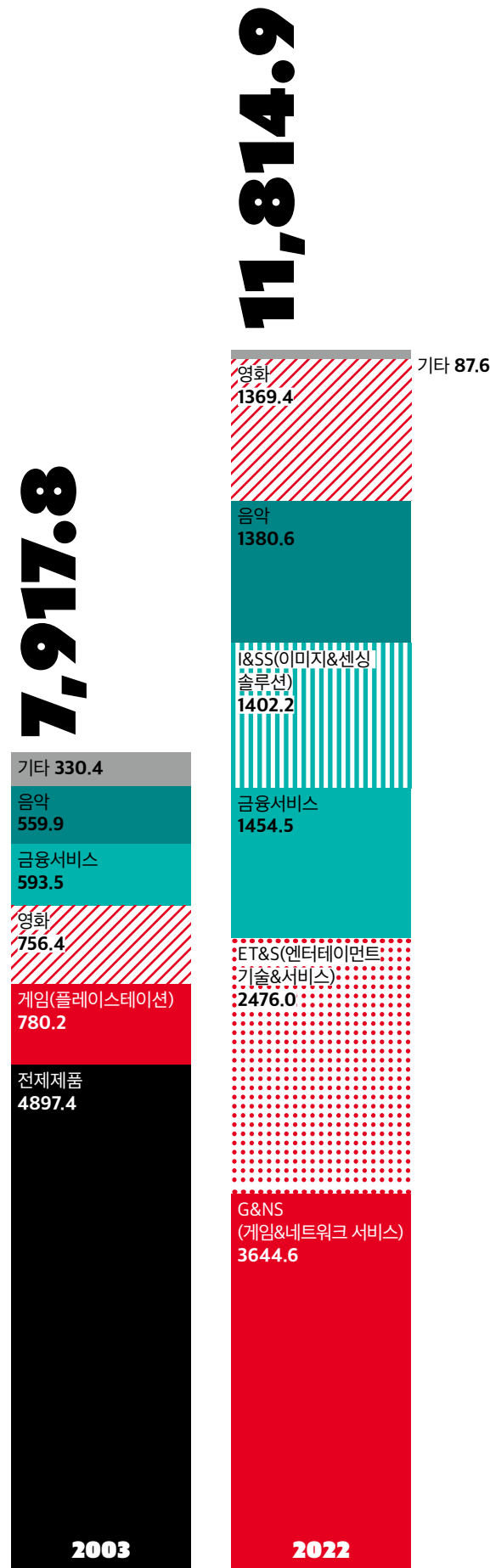
2000년대 중반 소니는 게임·영상 사업을 키우겠다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문가인 하워드 스트링어(Howard Stringer) 소니 필름 총괄역을 CEO로 선임했었다. 스트링어는 부진했던 전자 사업들을 정리하며 실적을 개선해 주주들에게는 기대를 받았지만,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경영진에게 실망한 기술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사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야심작인 플레이스테이션 3까지 대실패하면서 ‘소니는 끝났다’라는 평가가 시장에 만연했다. 이때 소니의 구원 투수로서 등장한 인물이 플레이스테이션의 복미 매출을 책임지고 있던 히라이 가즈오 前 대표였다.

히라이 가즈오 대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소니의 CEO를 맡았고 소니 부활을 이끈 장본인이다. 히라이 가즈오 대표는 플레이스테이션 3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플레이스테이션 4는 가성비 제품으로 만들었다. 소니의 차세대 반도체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AMD의 반도체를 사용했다. 가격을 대폭 낮춘 덕분에 플레이스테이션 4는 대성공을 거뒀다.

히라이 가즈오는 소니를 3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게임과 영화, 음악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디바이스로 구성된 성장 견인 영역이었다. 다른 하나는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같은 안정 수익 영역이었다. 지금도 소니의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는 아이폰의 인기 덕분에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자랑한다. 나머지 하나는 TV와 스마트폰처럼 사업 변동 리스크 영역이었다. 더 이상 투자해도 성장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다. 히라이 가즈오 대표는 2012년 화학 부문을, 2014년엔 유명 노트북 브랜드인 바이오 부문을 정리했다. 2017년엔 리튬이온 배터리 사업도 매각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주류 계열사 출신 CEO가 소니의 뿌리를 흔든다는 비판도 거뒀다. 하지만 히라이 가즈오 대표의 원칙은 분명했다. ‘감동’이었다. 과거 워크맨이나 TV에서 소니가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진정한 가치는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을 통한 감동’이었다는 것이다.

2017년 소니는 마침내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났고 히라이 가즈오의 방향성은 옳았음이 증명됐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 소니를 부활시킨 히라이 가즈오 대표는 2018년 소니 CEO에서 물러나 후임으로 소니 CFO였던 요시다 겐이치로를 선택했다. 2018년부터 소니를 이끌고 있는 요시다 겐이치로 대표는 소니 그룹으로 만드는 개혁 작업을 완수했고, 2022년 소니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2024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다. 경제 침체 위기가 기업을 위협하고 대중들의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소니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이다. 특히 업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서 불안정한 경영 환경은 오히려 기존의 리스크 요인들을 털어내고 빠르게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호기(好機)로 작용할 수 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국내 기업에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영웅 탄생에 기대해본다.

소니 부문별 매출 비교 2003년 VS 2022년 (단위: 십억 엔)



월출산에 물들다

영암지사

새로운 곳에 새로운 기운이 깃들기 마련이다.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이 절경을 만드는 월출산 아래에 새롭게 자리 잡은 '영암지사'를 찾았다.



눈 쌓인 월출산의 웅장한 산세.

월출산의 기운을 병풍 삼은 영암지사

달이 뜨는 산. 신라 때부터 국가에서 제사를 지낸 산으로 신령한 기운이 충만하다는 월출산은 호남의 소금강이라 일컫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산악형 국립공원이다.

월출산 아래 구림마을은 영암의 역사와 전통의 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2200년 역사를 자랑한다는 마을은 그다지 특별하달 것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다. 그저 낡은 고택과 나무와 바위가 수백 년일지 수천 년일지 모를 까마득한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월출산이 내려다보는 이 거리를 타박타박 느끼게 걷노라면, 그 정겨움과 편안한 정취에 어느새 녹아든다.

월출산 자락에 새롭게 등지를 튼 한전 영암지사도 역시 월출산의 기운을 병풍 삼아 정겨운 일상을 일구고 있다. 2년간 임시사옥을 벗어나 크고 깨끗한 신사옥에서 새로운 사무용 비품과 같이 일하니까 일할 맛이 난다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 영암지사 식구들.



제로 에너지 건축물 2등급을 받은 영암지사 사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설치되어 에너지 절감을 이룬다.

새로운 건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상

새롭게 입주한 영암지사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2등급을 받은 건물로 약 32%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녹색 건축물로, 한전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2020년 지은 파주지사부터 이번 영암지사까지 7개의 신축 사옥들에 대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했으며 앞으로 짓는 신사옥들에 대해서도 상향등급으로 인증을 취득해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암지사엔 신입사원들이 유독 많다. 대부분 입사하자마자 임시사옥과 신사옥으로의 이전 과정을 경험한 사우들이다. 여름이면 임시사옥에서 들던 사나운 빗소리와 건물에 물이 새던 경험, 겨울엔 정수기 동파를 경험한 일, 대부분 정말 바빴고 고생한 기억들이지만, 상사, 선배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기뻐했던 모든 과정이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며 한 목소리를 낸다. 이들의 일상 이야기들이 사옥 옥상에서 바라다보이는 월출산 설경처럼 포근하기만 하다.



영암지사 옥상에 서면 월출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사장(사진 가운데)을 필두로 사옥 앞에 선 영암지사 사우들.

정보보안실



우리 실은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기반시설 관리 및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분야에서 산업부 장관 세 점을 수상하였다. 53개 회원기관 중 최다 수상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앞으로도 회사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대내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보보안실 #산업부 장관상 #보안경진대회 우승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디지털전환실



우리 실은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기관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우수등급 인증을 받아 그간의 고품질 데이터 확보 노력을 대외에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디지털전환실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기관 인증서 수여식 #최우수등급

STARGRAM

이 코너는 KEP-CN과 KEPCO-EP사업소 소식에서 발췌하여 꾸며집니다. 시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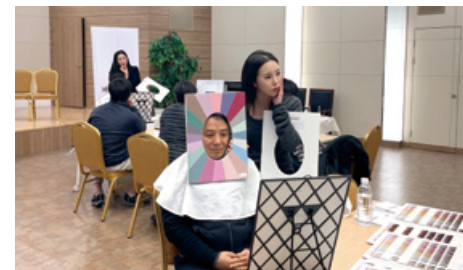
남전주지사



우리 지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2023 초록우산 전북 산타원정대'에 참가하여 봉사 활동을 시행했다. 저소득가정 및 양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도 함께하였다.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소망한다.

#남전주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타원정대 #크리스마스 선물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제주본부



자신의 퍼스널컬러에 맞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 컬러를 선택하면 훨씬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본부는 직원들과 함께 퍼스널컬러 진단을 받는 클래스를 열었다. 어울리는 색을 얼굴에 대자 갑자기 인상이 확 밝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활용해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제주본부 #나의 퍼스널컬러는? #겨울물론 #봄웜톤 #이미지 컨설팅 #좋은 첫인상

경기본부



우리 본부는 한전KDN, 한전MCS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대상으로 총 5,000장의 연탄을 지원하고 배달했다. 추운 날씨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을 나르고 나니 보람차고 뿌듯했다.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일 선물이 되었길 바란다.

#경기본부 #한전KDN #한전MCS #연탄배달 #따뜻한 겨울나기 #구슬땀.송글송글

정선지사



바쁘게 달려온 일 년! 한 템포 쉬면서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다. 우리 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기 위해 한전MCS,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총 1,200장의 연탄을 배달하였는데, 추운 날씨였지만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에 온기가 감도는 하루였다.

#정선지사 #한전MCS #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마음을 녹이는 미소

STARGRAM

원고 시전 보내실 곳 eunseonyang@kepcco.co.kr 문의 061-345-3128

설비진단처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위해 우리가 나섰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해, 생필품과 즉석식품 등으로 구성된 키트를 선물하였다. 화려하고 북적이는 만큼 더 외로울 수 있는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해본다.

#설비진단처 #겨울나기 사랑나눔 봉사활동 #생필품.즉석식품 #따뜻한 연말 #Happy_new_year!

함안전력지사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또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다. 우리 지사는 전력시설 주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방문복을 선물하였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면서 적적함을 달래드리고자 하였다. 쓸쓸하기보다는 풍요롭고 훈훈한 겨울이 되기를 소망한다.

#함안전력지사 #마음의 온도를 높여요! #독거노인 방문복 지원 #말벗 되어드리기

KEPCO NEWS

2024. 01

2024년 시무식 개최

우리 회사는 1월 2일 나주 본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동철 사장은 “재무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정착”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 3천억 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회사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로 전력망 적기 건설, 전기요금 이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등을 제시했다. “한전이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적기 건설 능력을 자산으로 원전 수출 무대를 계속 넓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전부터 판매까지의 가치사슬별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IT 기반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마인드를 버리고 주인인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며 주인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 수행해내는 사람”이라며 “자율과 책임 경영에 기반한 국민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최철호 전력노조위원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해는 유독 길고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밝히며 “노사 할 것 없이 전기요금 정상화에 올인한 한 해였지만 원하는 만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올해는 발전과 회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희망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전인상 수여식에서는 기술혁신 부문 최우수상에는 디지털 전환실 조재운 차장이, 경영혁신 부문 최우수상에는 재무처 박세운 차장이, 전력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에는 경기본부 박상현 차장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건강한 겨울나기 지원...크리스마스 선물 성금 전달

우리 회사는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결핵협회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대한결핵협회가 진행하는 ‘2023년 크리스마스 선물 모금 캠페인’에 전달했다.

성금 재원은 한전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조성한 ‘러브펀드’로 마련했으며, 전달한 성금은 대한결핵협회를 통해 결핵 예방·퇴치 및 결핵환자 지원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2023년도 크리스마스 선물은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속으로’를 주제로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결핵 없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 한 해 한전은 어려운 재무 여건 속에서도 ESG 경영을 실천하고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응하고자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마음을 담아 재난구호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고, 작년 고성 산불로 파괴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KEPCO 숲을 조성하는 등 우리 회사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제4차 노사협의회의

우리 회사는 12월 20일 본사 확대간부회의실에서 김동철 사장과 최철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노사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철 사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전력노조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하다”며 “2024년이 미래를 위해 큰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은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 현장의 자긍심마저 떨어지는 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의 노력이 발전과 회복을 노릴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고압 아파트 TV 수신료 업무, 노사 간 합의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 등 2건의 안건과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추진 경과의 보고 안건, 그리고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41회 공공HRD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

우리 회사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1회 공공HRD 콘테스트’에서 공공부문 최우수 교육훈련기관 및 최우수 강사(인재개발원 천무상 교수) 2개 분야에서 모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인재개발원의 질관과 분필, 노트와 펜, 교재 없이 진행되는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를 리딩하는 태블릿 클래스” 과정이 최우수 교육훈련기관에 선정되었다. 또한 최우수 강사 부분에서는 신입사원 대상의 ‘장주란 무엇인가’라는 배전 분야 직무강의로 대회에 참가해, ‘패들릿’, ‘슬라이드’라는 학습자 특성 파악과 소통에 중점을 둔 온라인 강의 Tool을 활용해 집중력과 만족도를 높인 점이 돋보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사내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UAE 원전 4호기 연료 장전 완료

우리 회사는 12월 19일 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연료 장전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UAE 원자력공사(ENEC)와 한전의 합작투자자로 설립된 UAE 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지난 11월 16일 원자력규제기(FANR)로부터 4호기 운영허가를 취득했다. 4호기는 지난 2015년 7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주요 마일스톤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다.

UAE 바라카 원전 4호기는 UAE 원전사업의 최종호기로 연료 장전과 더불어 단계적인 시운전 공정을 거쳐 2024년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UAE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1,400MW급 APR1400 노형으로서 향후 4개 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UAE 내 5,600MW 규모의 청정전력을 공급함으로써,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연간 2,24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예상되어, UAE 정부의 ‘Net Zero 2050’ 탄소저감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철 사장은 “1~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4호기 시운전 공정도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우리 회사는 12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감사실 심지은 차장)’ 2개 부문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수상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는 이 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업무추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개인에게 수여한다. 우리 회사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 이설’ 업무와 관련된 13건의 적극적 처리를 통해 공익 민원을 해소했고, 홈페이지 내 ‘적극업무 국민신청’ 자체 시스템 운영으로 적극업무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 부문은 지역본부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와 사례에 대한 설명 등 대내외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국민의 고충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의 이익 실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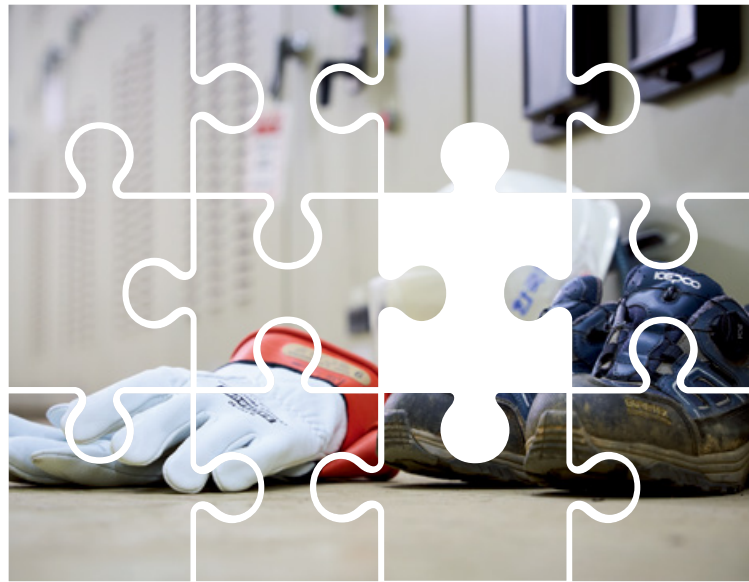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시행

우리 회사는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회사는 2023년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에 걸쳐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납을 시행한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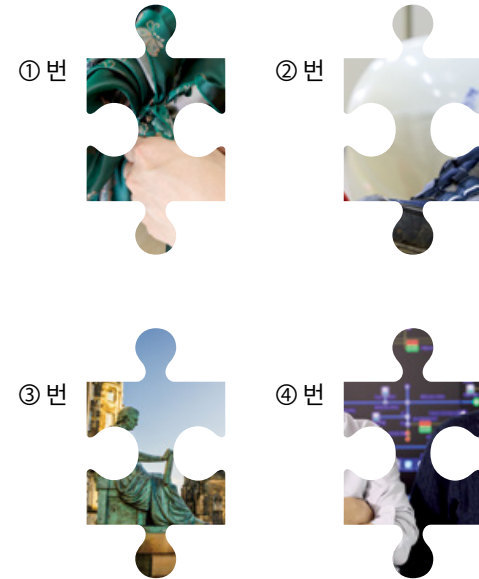
전기요금 분납 신청 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 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하여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하여 운영한다.

01 퍼즐 맞추기 quiz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춰 주세요!
Hint. 10~15쪽 'ESSENTIAL KEPCO'를 참고하세요.

퀴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02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 차*엽(2680)
- 배*한(3285)
- 박*기(7323)
- 김*선(2202)
- 윤*식(7234)
- 윤*지(5408)
- 고*환(0948)
- 김*수(0051)
- 김*순(5320)
- 허*기(8760)
- 구*기(7987)
- 김*영(3738)
- 김*현(6665)
- 이*영(2385)
- 김*설(5236)
- 서*진(5344)
- 정*석(3258)
- 김*상(6578)
- 김*한(3015)
- 김*우(5725)
- 심*희(5476)
- 김*수(9228)
- 박*숙(0181)
- 임*혁(1183)
- 김*지(1477)
- 김*형(7136)
- 오*홍(4935)
- 홍*석(6178)
- 윤*훈(6360)
- 이*배(6318)

03 지난호 정답

① 십자말풀이

	안			크		트
계	절			리		
	부	다	페	스	트	리
	절			마		
		디	톡	스		
		엠				

② 틀린 그림 찾기



기록은 매일 나를 성장시킨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다이어리를 구매한다. 새해에는 계획을 세워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길어야 두 달, 보통은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다이어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기록이 습관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록은 결심에 결심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기록은 습관처럼 자주 많이 쓸 때 비로소 인생의 최고 무기가 된다. **기록하는 방법을 깨닫고, 사사건건 기록하는 습관을 붙이면 우리 모두 유능하고 전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기록하면 대부분 계획 기록을 떠올린다. 매일 다이어리에 하루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연말 연초가 되면 희망에 차서 1년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계획 기록의 정수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1년은 계획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단위가 너무 크고, 하루는 일상의 실체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점형의 실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를 꾀하기에는 단위가 너무 작다. **그래서 나는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을 세우는데 더 힘을 쓴다.** 나는 매 월말이 되면 인생의 꿈과 나다움에 대해 생각하고 메모하기를 잊지 않는다. '인생지도 그리기' '버킷 리스트 써보기'를 하여 꿈을 상상한 상태에서 월간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 잡힌 과제들은, 수행의 총 시간을 계산해보고 몇 주에서 몇 주까지 그것을 실행할지, 즉 로드맵의 형태로 정리한다. 매 주말이 되면 이번에는



월간 로드맵을 한 번 훑어보고 주간 계획을 수립한다. 마찬가지로 과제 수행에 투여할 시간을 설정하고 요일 단위로 잘 배분해둔다. 물론 매일 아침 하루 계획을 짤 때는 이 주간 로드맵을 보고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 오전, 오후, 저녁에 할 일을 메모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의 과제들이 점형이 아니라 선형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각할 수 있다. 월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매일매일의 실행을 자신의 꿈과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헉, 이렇게 철저하게, 빼곡하게 기록을 하고 살아야 한단 말야?'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계획기록을 체계적으로 잘 함으로써 우리를 비로소 계획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삶과 일상을 조타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허둥지둥 방향 없이 지내고 마는 우리 자신을 후회스러운 눈초리로 보곤 하지 않았는가. 기록을 하는데 소요될 시간 때문에 오히려 기록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지레 겁먹고 삶의 최고 무기를 쉽사리 포기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에 30개의 한 줄 일상기록을 쓴다고 해도, 기록 한 줄을 남기는데 20초도 채 걸리지 않으므로, 실제로 일상을 한 줄로 기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총 10분에 불과하다. **기록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 실제로 기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며 그 효용은 엄청나다.** 다시 말하지만 기록은 습관이다. 기록은 지식과 지혜를 휘발시키지 않고 누적하는 최고의 무기이며, 내재하는 잠재성과 아이디어를 현재화 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또한 기록은 계획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일상을 보장해주는 도구이며, 무엇이든 잘 구상해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각 도움이다. **새해에는 하루에 4~5쪽씩 편안하게 메모하고 기록하는 삶을 시도해보기를 권한다. 한 달에 한 권씩 월간 다이어리를 써제끼는 일상의 습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